



## 정보통신용어표준화 활동소식

정 용 준 / TTA 표준화본부 표준지원부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용어(이하 “용어”로 칭함)가 표준화되지 않아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사소통과 정보공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여 1991년 이래로 정보통신용어표준화 4개 분과위원회(전기통신용어, 무선·방송용어, 정보기술용어, 데이터통신 및 S/W 용어)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정보통신용어사전 및 온라인 상의 용어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보급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난 4월에 열린 정보통신용어표준화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등 용어표준화 활성화를 위한 최근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 정보통신용어표준화의 중요성

정보통신용어는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구미 선진국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용어들도 외국

에서 먼저 정립되고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한 개념에 여러 용어가 사용되어 혼란이 있고, 정보사회가 발전되면서 정보검색, 번역, 기술표준 및 지식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이 늘어나고 있어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를 위해 용어의 표준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억하기 쉽고 명확한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용어는 우리 언어체계에 맞게 다듬어지고 통일되는 일이 요구된다. 우리 과학 기술이 이 땅위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외국어들을 분별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일이 장애가 될 수 있다. 말에는 그 민족의 창의력이 깃들여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보통신 용어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들이 만든 생산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여기에는 이 시대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수준과 생각과 창의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용어를 쓰면서 더욱 다듬고 가꾸어서 정보통신용어가 이 시대 우리 정보통신학문의 거울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제2003-1차 정보통신용어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이번 2003년 1차 정보통신용어 분과위원회 회의가 4월 14일부터 21일에 걸쳐 TTA 제3회의실에서 있었다. 2003년도 1분기 동안 제안된 254개 용어를 대상으로 검토 및 수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164개 용어를 정보통신용어사전의 수록 용어로 선정하였고, 이미 일반인들에게 널리 사용되어 표준화가 시급한 29개의 용어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표준화 심의대상 용어로 선정하였다. 또한 잘 쓰이고 있지 않는 용어 60개를 삭제하였고, 보완이 필요하거나 표준화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용어 30개는 기타 용어로 분류하였다.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개최 결과는 [표 1]과 같다.

사람은 대개 불편한 용어를 새롭게 고치고 다듬는 쪽보다는 불편해도 익숙한 용어에 적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 있다. 용어 토의과정 중에도 익숙해진 자기 분야의 용어는 이미 쓰고 있는 것을 사용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좀 낯선 다른 분야의 용어는 쉽게 바꾸

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에서 그 말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표준화 심의대상 용어[표 2]로 선정된 29개의 용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견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용어가 있었다. 이러한 용어는 오는 7월에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용어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는 사무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용어조사 카드에 의한 집필계획’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용어조사 카드에 의한 집필계획’은 인터넷 및 사전 등에서 최신 용어 및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표제어와 개념들을 수집하여 하나의 카드로 작성한 후, 이 카드를 참고하여 집필을 장려하고 용어표준화 회의에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분과위원들이 이것이 용어의 체계적인 수집과 표준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는데 공감을 하였고, 활용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무국에서는 이 계획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표 1] 제2003-1차 정보통신용어표준화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분과위원회(개최일)	참석자	검토 용어수	선정 용어수(표준화 심의대상 용어수)	삭제 용어수	기타
전기통신용어분과 (4/14)	이상홍 의장 외 6명	65	31(4)	33	1
무선·방송용어분과 (4/16)	김창주 의장 외 6명	63	43(16)	10	10
데이터통신 및 S/W 용어분과 (4/18)	양해술 의장 외 8명	63	51(1)	3	9
정보기술용어분과 (4/21)	이홍섭 의장 외 7명	63	39(8)	14	10
합계		254	164(29)	60	30

[표 2] 표준화 심의대상 용어

분과위원회	우리말 표제어	영문 표제어	우리말 표제어	영문 표제어
전기통신	콜센터	call center	상호인정	Cross Recognition
	광 전송망	Optical Transport Network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Ubiquitous Network
무선·방송	AES/EBU	audio engineering society/european broadcasting union	BMWS	Broadband Multimedia Wireless Service
	cdma2000 1xEV-DV	cdma2000 1x Evolution Data & Voice	cdma2000 1xEV-DO	cdma2000 1x Evolution Data Only
	CIBER	Cellular International Billing Exchange	CCK	Complementary Code Keying
	고정 음영	constant shading	전자 프로그램 안내	electronic program guide
	XHTML 베이직	eXtensible Hypertext Markup Language Basic	지표 투시 레이더	Ground Penetrating Radar
	고속 하향 패킷 접속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라스트 마일 기술	last-mile technology
	이동 IPv6	Mobile IPv6	이동 전자지불	mobile payment
데이터통신 및 S/W	스캐터넷	scatternet	스마트 안테나	smart antenna
	임베디드 컴퓨터 시스템	Embedded Computer System		
정보기술	캐시 서버	cache server	디지털 저작권 관리	digital rights management
	키 관리 기반 구조	Key Management Infrastructure	선형 궤환 시프트 레지스터	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
	메시지 다이제스트	message digest	보호 프로파일	Protection Profile
	워터마킹	watermarking	SAM	Secure Application Module, Secure Access Module

### 정보통신용어사전 교정·편집 현황

이번 용어 토의과정에서 지금은 많이 쓰이고 있지 않는 용어나 우리말 표제어의 통일안 선정에 일관성이 없는 용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보통신용어사전 제5판 발간을 즈음하여 제4판 일고의 1차 교정작업에서도 위와 같은 표제어를 비롯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비트 구동기 bit driver[기초]’와 ‘장치

드라이버 device driver[컴퓨터]’와 같이 영문 표제어 ‘driver’가 ‘구동기’와 ‘드라이버’로 각기 다른 우리말 표제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프로그램 가능 읽기용 기억장치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 PROM[컴퓨터] (표준/기초)’와 같이 약어로서 풀어서 쓸 경우 지나치게 길어져서 현재는 많이 쓰이고 있지 않은 용어들도 있었다. 그밖에 용어의 풀이말 속에 들어 있는 용어이면서 용어사전에는 수록되지 않은 경우, ‘TTU’와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있



으나 관련성 있는 계열 표제어인 'TTU-T', 'TTU-R'은 수록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분석되었다.

사무국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들을 정리하여 분과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하고 해당 용어들을 정비하여 오는 12월에 정보통신용어사전 제5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 정보통신용어 검색서비스 및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현황

지난해 TTA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통신용어 검색서비스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분석되었다. 사용자 측면에서 찾고자하는 용어가 검색되지 않았을 때의 불만과 인터페이스 상의 불편함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고, 오는 7월초에 새로운 정보통신용어 검색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개선될 시스템의 구축 목표는 다양한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제공하고, 누구나 표준 용어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용어표준화 참여를 유도하며, 메타검색

색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최신 용어를 수집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표준 용어 제정 및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림 1]은 현재 개발 중인 새로운 정보통신용어 검색서비스의 메인 페이지 시안이다. 그림과 같이 왼쪽에 다양한 메뉴가 구축될 예정인데, 간략하게 소개하면 '정보통신용어사전' 및 '외부사이트 메타검색' 메뉴에서는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원하는 용어를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검색 실패시에는 다른 유용한 정보통신 관련 용어사이트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용어를 표준화 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북마크' 및 '용어서비스' 메뉴에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용어를 저장·관리할 수 있는 개인 맞춤 기능 및 새로 시스템에 등록된 용어를 소개하는 '신규용어'와 오늘의 주요 표준 용어를 소개하는 '오늘의 용어' 등 다양한 용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한다.

또한 '신규용어 제안' 및 '용어표준화 사업소개' 메뉴는 용어표준화 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기획되었는데, 용어표준화 사업의 소개와 함께 표준화기술위원회, IT 국제전문가 및 포럼 등의 여러 정보통신 분



[그림 1] 메인페이지 시안

야의 전문가들이 신규용어를 제안하고 용어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그밖에 'FAQ', '도움말' 등의 메뉴에서는 용어검색서비스 이용상의 여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있다.

### 정보통신용어표준화의 활성화

지금까지 정보통신용어표준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 등 최근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였다. 표준화된 용

어 중에는 우리말로 편리하게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용어도 있지만 외국어를 그대로 표기한 용어나 일본식 한자용어들과 같이 만족스럽지 못한 용어들도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사용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고 더 좋게 다듬어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TTA에서는 표준화위원회, 포럼 및 여러 학회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어표준화 추진체계 및 전자적 시스템을 보완하고 정보통신용어 제정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정보통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다. 

### 세계 첫 '휴대폰 백신' 개발

세계 최초로 휴대폰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솔루션이 개발됐다. 이에 따라 컴퓨터에 이어 바이러스의 주요 공격 대상으로 자리잡을 휴대폰 백신 서비스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대표 표문수)과 안철수연구소(대표 안철수), IA시큐리티(대표 안철수) 3사는 휴대폰 기반 백신 솔루션 개발을 마쳤다고 4월 8일 밝혔다. 지난 8개월 동안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기술과 안철수연구소의 백신 관련 기술 그리고 IA시큐리티의 무선보안 기술이 결합돼 탄생한 이 솔루션은 △휴대폰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의 실시간 탐지 및 치료를 시작으로 △바이러스 수동검사 △실행파일 실시간 검사 △시스템에 의한 자동검사 △수시 엔진 업데이트 △바이러스 발생시 검사기록 관리 등 기존 PC에서 제공하는 백신의 기본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탑은 물론 정통부가 추진하는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인 위피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위피가 국내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으로 확정되면 이를 지원하는 어떤 휴대폰에서도 백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대폰 기반 백신 서비스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이 결정되고 이를 지원하는 휴대폰이 대중화되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을 맡아 진행한 원유재 IA시큐리티의 기술이사는 "이번 개발은 포스트PC 시대에 대비한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호협력에 의한 세계적 기술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안철수연구소와 IA시큐리티는 모바일 기기에 대한 백신기술은 물론 무선보안 보안기술 및 응용기술을 확보해 세계 글로벌 모바일 보안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은 무선망 개방 등의 향후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